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광양시,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선정

### 봉강면·다압면 2곳 총 80억 지원 낙후된 농촌 생활환경 개선 기대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 거점 육성' 공모사업에 봉강면과 다압면 2곳이 최종 선정돼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 배후마을에 편의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08개 사업이 신청한 가운데 전남도의 1차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차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심의위원

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선정된 봉강면과 다압면에는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지역에 각각 40억 원씩 지원된다.

우선, 봉강면은 학자지결 신명나는 청정 봉강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인근에 비봉복지센터 증축과 비봉

광장 조성, 신활력프로그램, 경관길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다압면은 精(정)通(통)한 多(다)압면이라는 비전아래 정담센터 조성, 복합문화행정타운정비, 안전보행로 조성, 정담은 자연놀이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이뤄진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체 활성화와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옥룡면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지구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22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성료

순천시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구인안을 겪는 기업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8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를 5일 순천발매교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는 일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 여성일자리가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서 1,700여명의 구인여성과 210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444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될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여성의 취·창업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부스로 구성되어 다양한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1:1 구인·구직 채용대행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이미지 컨설팅으로 면접까지 가능하며, 취업준비를 위한 멘토의 소집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직업 디자인관'에 여성들의 관심이 높았다.

여성구직자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직종별 채용관', 수납정리전문가, 드론전문가, SW코딩지도사 등 취업과 창업으로 도전

할 수 있는 직종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창업 체험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을 점검해보는 '회장관(화사한 창업관)', '한국에서 암마로 살기 힘들 시죠?'라는 주제로 일·가정 양립, 여성취업 관련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박람회를 운영하여 참여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부터 은퇴시까지 전생애에 걸친 취업설계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과 성공등에 관련된 인식개선 및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늘리는 누구도 배제 받지 않는 '모두의 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포용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자원과 사명을 선순환시켜 경제성장의 혜택이 여성 여러분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대한민국 미래관광대상 수상

천혜의 자연·근현대문화 공존 미래관광산업 대표도시 육성



보성군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드경제와 파워코리아 데일리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에서 미래관광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미

래경영대상'은 지난 7월부터 현장평가 등 1, 2차 심사를 거쳐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력으로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경영인과 기업, 기관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보성군은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이자 서재필박사, 홍암 나철선생, 채동선 선생 등 근현대문화가 함께 하는 남도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김철우 보성군수가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집약한 권역별 미래관광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보성의 새로운 산업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회천권역에 최근 개장한 울포해수욕장센터를 중심으로 차문화공원 인근에 복합 레저시설 등 해양·녹차

관광단지 조성 ▲별교권역에 태백산맥 테마파크, 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 및 시가지 전역의 근·현대 문화거리 조성 ▲북내권역은 주암호 생태습지 등 내륙습지를 적극 활용한 생태보존과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 ▲투랑권역의 비봉공동공원, 비봉마리나, 비대낙시 공원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성군은 봄 다향대축제, 여름 전어축제, 가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및 꼬막축제 겨울 차밭 빛축제 등 4계절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 제일의 산림생태휴양지인 제암산 자연휴양림과 1000명 규모의 일립산 철쭉 군락지, 대원사 빛꽃길, 울포습밭해변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천혜의 자원들을 지속가능한 미래관광산업 자원으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지역경제·사회 발전

### 기여한 기업인·근로인 발굴

광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근로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8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시상은 기업인과 근로인의 기를 살리고 기업 사랑과 산업평화 계기로 시장 목표인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처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조례호수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실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기여도, 사회공헌도 등 3개 항목을 심사한다.

'산업평화상'은 노사화합과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사회공헌도 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기업 대표는 추천 기준에 적합한 CEO 및 근로자에 대한 추천서,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광양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실(☎97-3122)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탐방 운영

#### '호기심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책 여행'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에서는 오는 29일, 10월 13일, 10월 27일 세차례에 걸쳐 '호기심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책 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며,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2018 특화도서관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조례호

수도서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모세환대표와 함께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벗어나 호기심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탐방형 강의이다.

1차시는 '순천만을 읽습니다'를 주제로 순천만을 둘러보며 문화와 여행에서 나타나는 순천만에 대해 알아보고, 순천만 전문대의

비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차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찰스프랜시스 호수정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와 에코디자인 체험, 국가정원 조성에 담긴 생태와 도시적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순천 문화관을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정재봉 선생님의 생애와 문화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무진기행의 배경이 되는 순천만을 걸으며 김승욱 선생님의 무진기행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순천=김종영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